

영광서도 지진 감지...한빛원전 안전한가

울산서 5.0 지진...원안위 "6.5 규모 내진설계돼 영향없다"

전문가들 "설계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기본부터 점검해야"

지난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역대급 지진이 한반도를 뒤흔들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원전의 안전에 쏠리고 있다.

지진에서 비롯된 쓰나미로 원전 시설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 내리고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합한 탓이다.

이번 지진은 국내 24기의 원전 중 6기가 몰려있는 서해안의 영광 한빛원전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 원전 당국은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훨씬 밑도는 지진으로 안전에 영향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전을 수시로 드나들며 검증 활동을 벌인 원전 전문가들은 "설계기준, 과거 지진의 규모에 얽매여선 안 된다. 유사시 전원 공급, 원자로 및 사용후 핵연료 냉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5위 지진...당국 "원전 이상 없다"=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33분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국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역대 5위 규모다. 진앙지에서 무려 325km나 떨어진 영광 한빛원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전국에서 국민안전처 등으로 쏟아진 문의전화만 수천건에 이를 정도였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도 70여건의 신고 전화가 잇따랐고 특히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일 이어졌다.

그러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에 영향 없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인 0.2g(중력가속도·6.5 규모)에 이르지 못한 지진 규모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견전성에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은 지진 값이 0.1g

(6.0 규모) 이상이면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을 멈추고 0.18g 이상이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정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계기준을 초과한 지진이 일어날 경우, 국내 원전 비상계획서에 따르면 주민 소개령 검토가 이뤄지고 원자로가 녹아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주민소거가 이뤄진다.

◇전문가 "내진기준 충족됐나 의문 속 기본 강조"=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쏠린 원전 안전성에 대해 "대지진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전이 설계 기준대로 건설·유지되더라도 "기준을 뛰어넘는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전 사고의 경우 ▲원전 시설에 대한 전원(전력) 공급 대책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유지 방안을 기본이자 중점 점검 사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빛원전 바로 앞 영광 갯벌이 냉각수를 끌어오는 취수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후쿠시마사고가 지진 해일에 따른 침수로 원전 시설에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냉각재(바닷물) 공급과 순환이

가로막혀 일어난 사고임을 강조하며 기본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메가톤급' 재난을 불러올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한빛원전을 비롯한 가동 원전 23기의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물탱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고 모두 내진 설계기준을 충족한 시설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원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 상당수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고만 살펴보다도 건설 방식이나 폐기물 저장 방식 모두 6.5 규모의 지진을 감당하기에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진 발생 땀 밖으로 대피하세요

6일 광주시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전날 울산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광주 북구청 안전도시국 직원의 안내로 어린이들이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건축물 3채 중 2채 내진설계 안돼

전체 내진설계율 34.6% 불과

공공기관 제외 땀 10% 수준

광주지역 건축물 3채 중 2채는 내진 설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택 등의 내진 설계율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동찬 시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건물을 포함한 광주지역 전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34.6%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 건물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내진 설계율은 10.12%에

그쳤다.

자치구별 내진 설계율은 동구 1.36%, 북구 6.14%, 남구 8.42%, 광산구 15.62%, 서구 19.06%로 조사되는 등 오래된 건물이 밀집된 동구와 북구의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광주지역 내진 설계 대상 공동주택 4847곳 중 793곳은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지역 내진 설계 대상 학교 864곳 중 내진 설계가 이뤄진 학교는 전국평균(31%) 못 미치는 27%(219곳)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선 역대 8위급 4.9 지진 3차례 있었다

광주·전남 지진 연평균 5건 달해

전남 해역에서 역대 8번째로 규모가 컸던 4.9 지진이 3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전남에서 최근 17년 동안 연평균 5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상청 지진관측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21일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등 역대 8번째로 강력한 규모 4.9의 지진이 3차례 발생했다. 2003년 3월23일 흥도 북서쪽 약 50km 해역과 1994년 7월26일 흥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측정됐다.

규모 4.9는 집이 크게 흔들리고 창문이 파손되는 수준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80년 1월8일 평택 서부 의주 등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다. 광주와 전남 내륙과 해역에서는 2000년 이후 지난 17년 동안 모두 85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9차례 측정됐다.

한편,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1990년 15건, 2000년 29건, 2010년 42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반려동물 키우다...안타까운 화재

냄새 제거용 향초 원인 가능성...아들 숨지고 아버지 중태

'개와 고양이 때문일까.'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의 냄새를 없애려고 피웠던 향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아들이 숨지고 아버지는 중태에 빠졌다. 특히 반려동물이 향초를 건드려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24분께 광주시 북구 읍안동 한 아파트 A(43)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A씨의 아들(17)이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다. 또 현장에서는 개

와 고양이가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 이날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의 큰아들(19)은 경찰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평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2~3개의 향초를 피웠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들은 개 1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향초가 피워진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애완동물들이 향초를 건드려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요양병원 치매환자 폭행·학대 수사

보성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치매환자의 몸에서 골절상과 함께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의 학대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6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보성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환자 A(여·98)씨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과 전치 7주의 골절상이 발견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A씨의 가족은 "폭행 등 학대에 의한 상처로 의심되는데 병원 측이 은폐하려고 한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가족들은 "지난 2일 해당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A씨의 어깨와 등 부위에 나 있는 멍자국을 발견했다"며 "병원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환자들끼리 부딪혀 생겼다' '침대에서 낙상했다' '넘어졌다' '다른 할머니가 밟았다' 등 엇갈린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오른쪽 새골 뼈 골절 등으로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몸에 생긴 골절 등은 지난달 26일 생겼지만 병원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주일 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초동 대처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침대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치지 폭행 등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전·현직 의원들 무죄 선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발생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낮 알몸으로 전봇대 올라가 음란행위한 불법체류 태국인



○...대낮에 술을 마시고 알몸으로 전봇대에 올라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태국인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법 체류사실이 탄로나 추방될 처지.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태국인 A(20)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 인근도로에 옷을 벗어두고 전봇대에 올라가 음란행위를

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들자 차량 위로 뛰어내려 B(57)씨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

○...음란행위와 재물손괴 외에도 경찰 조사를 통해 태국인 A씨는 국내 체류기간을 벗어난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공연을 관외를 범한 A씨의 경우 또 다른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없을 경우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 (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전 지역 신속 책임 중개 /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동구 지산동 434-2, 1층)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대로변 7층중 4층 상가317㎡ 감정가 7억8천 최저가 4억3천6백(56%)투자적합
- ★ 전라남도 나주시 오랑동 가야능공단지내 공장대지 3,587㎡ 건물 1,097㎡ 감정가 9억 최저가 9억 신축병동 참고 사무실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대지 6,552㎡ 건물 2,473㎡ 감정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만원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
- ★ 함평 해보면 용산리 공장대지 3,306㎡ 건물 1,977㎡ 감정가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가덕리 공장대지 3,661㎡ 건물 1,644㎡ 감정가 17억3천6백 최저가 4억5천5백(26%) 13번국도변
- ★ 광주 북구 연제동3층 상가대지 279㎡ 건물513㎡ 감정가 5억1천8백 최저가 3억6천2백 아파트단지앞
-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21억3천2백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유등동 대로변6층 상가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등 무인텔 대지1,010㎡ 건물1,610㎡ 객실20개 월 5천만원 매매 20억원
- ★ 광주서구화정동 6층모텔 유등대지416㎡ 건물2,000㎡ 터미널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보증금 2억5천 월 1천4백 매매 27억(용13억포함)
-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298㎡ 건물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면 매매 13억5천
- ★ 광주 수원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가 17억
- ★ 목포시 연산동 롯데스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광주 산수동 대로변 4층건물 대지 596㎡ 건물 948㎡ 주택 86㎡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4층 빌딩 대지782㎡ 건물1,829㎡ 보증금 6억 월 2천3백 용 18억 매매 48억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판매장 상가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원함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펜션카페 대지15,668㎡ 건물900㎡ 수익성미려가치우수 매매가상담후결정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 전남 장성군 장성읍 행북한옥마을 대지 666㎡ 강변조망 무상보증금 3천만원 용자 4천만원 매매 1억3천7백만원 조정가능 프리미엄없음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상가 사무실, 2~4층 오피스텔 매매 13억5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용 2억7천) 투자적합 직영추천
- ★ 광주 북구 태평동 광주북초교인근 토지 11,052㎡ 도로점 투자가치 최적 매매12억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10-6838-6008